

광주 선거구 공천 마무리

동남 갑

더민주 VS 국민의당...만만찮은 무소속

‘3선 도전’에 나선 장병완 의원이 국민의당 후보로, 시사평론가인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맞붙는다.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민주당	민중연합당	무소속	무소속
이름	최진	장병완	권용일	신나리	강도석	강운태
나이	56	63	49	27	61	67
역력	·전 청와대 정책비서실국장 ·전 한국행정학회 이사	·현 국회의원 ·전 기획예산처 장관	·현 민주당 남구지역위원회 위원장 ·전 남구의회 의장	·현 보건의료노조전대병원지부 사무장	·현 한민족통일문제연구소장 ·전 광주시의원	·전 광주시장 ·전 국회의원

여기에 새누리당에서는 한경노 광주시장 남구당협위원장, 민중연합당에서는 신나리 보건의료노조 전대병원지부 사무장, 민주당에서는 권용일 전 남구의회 의장, 그리고 무소속으로 강운태 전 광주시장과 강도석 전 광주시의원이 나선다. 김명진 전 김대중정부 청와대행정관도 무소속 출마를 검토 중이다.

우선 3선 도전에 나서는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이 21일 경선 결선 투표 논란 속에 공천을 확정했다. 장 의원은 정치 신인들의 거센 도전을 물리치고 경선을 통과했지만, 본선 역시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3선 도전 국민의당 장병완

DJ정부 행정관 더민주 최진

강운태, 선거법 수사 결과 변수

가장 강력한 경쟁자나 다름없는 강운태 전 광주시장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등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더민주의 지난 30여년간 언론, 청와대, 대학교수를 거치며 ‘대통령학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최 후보를 최근 전략공천했다.

최 후보는 김대중 정부시절 청와대 정책비서실 국장과 국정홍보비서실 국장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정책홍보실장을 지낸 바 있다.

최 후보가 남은 선거기간 동안 지역 기반이 없는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이다.

서구 갑

종친대결 ‘갑’이 높냐 ‘기’가 세냐

광주 서구갑에서는 학생 운동권 출신인 ‘486’ 토박이 정치인 출신 VS 법조인의 맞대결로 이뤄지게 됐다.

특히 고홍 향우회 종친끼리의 맞대결이라 관심이 많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광주 서구갑 후보로 송갑석 노무현재단 운영위원과 송기석 전 광주지법 부장 판사를 각각 확정했다.

송 후보는 더민주 광주 유일한 현역 의원인 박해자 후보를 경선에서 꺾고 본선에 올랐다. 송 후보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당시 민주통합당이 서구갑 선거구를 ‘여성 경선 지역’으로 확정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16.74%의 득표율을 올렸지만, 박 의원에 패했다.

4년 만에 경선에서 박 의원을 꺾고 본선에 진출한 송 후보는 “경선 승리에 힘입어 본선까지 승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호남 인재영입 1호’로 꼽히는 송기석 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우여곡절 끝에 21일 공천권을 거머쥐었다. 국민의당은 전남 속의배심원

정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중연합당
이름	양병현	송갑석	송기석	장화동	이은주
나이	61	49	52	53	44
역력	·현 상지대 교수 ·현 새누리당 수석부위원장	·현 더민주 정책위 부위원장 ·전 전남대총학생회장	·현 당 정책위의장 ·전 광주지법부장판사	·전 광주시 인권증진 시민위원장 ·현 중소기업실리기광주네트워크대표	·전 6대 서구의회 부의장 ·현 민주당당 중앙위원

더민주 박해자 꺾은 송갑석

국민의당 호남영입 1호 송기석

고홍 향우끼리 승부

제 경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1위를 차지한 정용화 후보의 신인 가점 논란을 문제 삼아 공천을 취소하고, 차점자인 송 후보를 이날 공천했다.

송 후보는 사법연수원 25기 출신으로

광주지법, 광주고법 등에서 근무했으며, 지난 1981년 용공 누명을 쓴 광주 햇볕회 재심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무죄를 선고해 33년만에 명예회복을 시키면서, 사법부의 과오를 시죄한 판결을 내려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여기에 새누리당에서는 양병현 상지대학교 교수, 정의당에서 장화동 전 광주시 인권증진 시민위원장, 민중연합당에서 이은주 전 서구의회 부의장이 각각 출사표를 던지고 경쟁에 뛰어들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새누리 선대위원장에 강봉균 영입...여야 ‘경제통’ 대결

DJ정부때 재경부 장관...내일 선대위 공식 발족

최고위들 전원 공천...유승민 지역구는 또 보류

새누리당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을 영입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또 오는 23일 강 전 장관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하는 선대위를 공식 발족하기로 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강 전 장관의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공식발표는) 수요일(23일)쯤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더민주 김 대표가 자신을 비례대표 2번으로 ‘셀프공천’한 것을 두고

당내 논란이 인 것과 관련, 비례대표 공천에는 뜻이 없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국회의원 배지를 한 번 더 달겠다는 그런 개인적 사심이 있는 사람으로 오해받고 싶지 않다”면서, 실령 당에서 비례대표 공천 제의를 받더라도 수용치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강 전 장관은 재정경제부·정보통신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과 3선 의원을 역임한 경제전문가다. 야당에서 경제 관료를 지냈으나 기본 인식은 보수적 성향으로 평가받아왔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강 전 장관을 경제 이슈 전면에 내세워 더민주 김종인 대표 체제에 맞붙을 것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지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해온 유승민 의원 지역구 대구 동구을의 경선 후보 압축 문제는 논의 테이블에도 올리지 못해 또 다시 매듭짓지 못했다. 이에 최고위는 이재오(서울 은평을) 의원을 비롯한 일부 낙선자들의 재심 문제에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또 이날까지 새누리당의 공천 심사 및 경선 결과 고무성 대표 등 최고위원 전원이 공천을 확정 지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총장 단 등 당 고위직 인사들도 대부분 총선행 공천 티켓을 따냈다. /박지경기자jkipark@



20일 대구시 동구 유승민 의원(동구 을) 지역구 사무실에서 지지자와 기자들이 새누리당 이헌구 공천관리위원장의 총선 경선지역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4·13 총선 현장

이형석, 광주 북구 을 출마 공식 선언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전 광주시경제부시장이 21일 “광주 경제를 위해 뛰겠다”면서 광주 북구를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상 민생파탄에 직면해 있고, 청년 실업률은 12.5%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면서 “이제 광주는 경제민주화의 선도도시가 되어야 한다. 산업 구조 다변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로를 모색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광주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겠다”며 “광주시 경제부시장을 역임했던 경력을 최대한 살려 광주발전의 초석을 놓겠다”고 말했다.

김하중 “천정배와 끝까지 싸우겠다”



김하중 예비후보가 21일 “광주 서구에 끝까지 남아 기필코 승리하겠다”며 종전의 광주 북을 출마선언을 뒤집고 광주 서을 출마를 재선언했다. 김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 회에서 “많은 고민 끝에 당의 결정대로 광주 북구를 출마를 선언했지만, 경선일을 이룰 앞두고 경선물을 바꾼 일은 매우 불공정한 일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자신의 단수공천을 위해 경쟁력있는 정치신인을 학살하는 천정배 대표를 더 이상 국민의당 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며 “서구에 남아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황을 지켜본 후 무소속 출마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 현장

오형근 “제철 남도음식 특화가게 신설”



국민의당 오형근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2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관광벨트와 사업, 먹거리를 제공하는 아시아음식문화 테마의 거리 조성사업과 함께 ‘제철 남도음식 특화가게’를 개설, 동구를 문화관광 1번지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남도의 제철 음식으로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면 문화관광 1번지 동구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문화관광 활성화가 동구는 물론이고 호남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1석 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권일·이종행 기자 cki@kwangju.co.kr

김성환 “아동학대 관리·예방책 시급”



국민의당 김성환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21일 아동학대사건과 관련, “사법부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을, 교육당국과 자치단체는 상시적인 전수조사 등을 통해 유아 및 아동에 대한 관리 강화와 사전 예방 대책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아동학대처사죄의 권고 형량은 징역 4~7년으로 일반적인 살인죄의 처벌 기준인 징역 10~16년의 절반에도 못미친다”며 “최고 종선형까지 처벌 수 있게 한 해의 사례를 고려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특히 “자치단체들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예방교육 및 홍보에 앞장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사단법인 정통풍수지리연구학회

모 집

자격 관리·운영규정 제7장 제17조에 의거 한국직업능력 개발원에서 인정한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교부

- 등급
  - 주거환경개선사 (단일급)
  - 통맥풍수지리사 (1급, 2급, 3급)
- 응시자격
  - 본학회 4학기이상 수료한 자에 한하여 자격시험 응시가능 (년2학기 : 1학기당 15주 30시간)
- 풍수지리학 강의
  - 개 강 : 상반기 : 3월 첫주 월요일, 하반기 : 9월 첫주 월요일
  - 시 간 : 매주 월요일 19:00 부터 (2시간)
  - 과 목(내용) : 자격종별도 별도 커리큘럼 참조
- 장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280-27번지 3층 (북구청 앞, 튼튼정형외과 병원 옆)
- 문 의 : ☎ 062-511-2488, 010-3615-2488
- 홈페이지 : http://tmps.kr 또는 “통맥풍수” 를 치세요. e-mail : insans@daum.net

■ 이사장 윤갑원(尹甲源) 프로필

- \* 光州出生(1937年 丁丑生)
- \* 全南大學校 行政大學院 修了
- \* 前 羅州公共圖書館長(書記官) 역임
- \* 前 韓國公認仲介士協會 風水地理學班 專任講師
- \* 前 社團法人 韓國人間開發研究院 風水地理學 專任講師
- \* 前 서울경희대, 東서올대, 충북대학교, 부동산학과 風水地理學 專任講師.
- \* 前 서울덕성여대, 서울교육대, 대구교대, 대구가톨릭대, 충북대, 全南大, 木浦大, 順天大, 麗水大學校 平生教育院 風水地理學 專任講師 風水地理學專擔講師
- \* 現 서울, 대구, 청주, 원주, 부산, 광주순회 매주 定期的인 現場教育 實施
- ◆ 著 書
  - 1. 道誼通脈地理(宮中秘傳風水) 總整理版(改正增補 1~6 版)
  - 2. 半坪의 眞理(통맥풍수지리학 입문서)(改正增補 1~5 版)
- ◆ “선조합동묘(先祖合同墓) 장법(葬法), 천개(天蓋)용 “봉판(棚板)”



이사장 윤갑원



학회장 김동국

제5대 이사

- 이 사 장 윤 갑 원
- 상임이사 김 용 국
- 이 사 김 중 수
- 이 사 임 태 중
- 이 사 황 정 연
- 이 사 이 종 근
- 이 사 정 병 선
- 이 사 양 동 주
- 이 사 정 태 일
- 이 사 이 미 경
- 감 사 박 석 규
- 감 사 김 영 희
- 사무국장 윤 인 성
- 총 무 조 북